

F-02 퇴직·소득중단과 제2의 일

퇴직일·첫 연금일·재취업 수입 사이의 공백과 비용을 먼저 계산합니다.

큰글자 학습본

핵심 문장과 행동 순서를 15.5포인트 큰 글자로 제공하는 읽기 지원 자료

판본 1.0.0 · 기준일 2026-09-01 · 다음 점검 2026-12-01

일반 교육자료입니다. 실제 계약·신청·세금·연금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.

왜 배우는가

퇴직은 소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, 건강보험, 세금, 대출상환과 **생활방식**을 함께 바꿉니다. 재취업·창업의 기대소득을 확정수입으로 놓기 전에 공백기간과 실패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.

먼저 알아야 할 말

소득절벽

근로소득이 끝난 뒤 연금 등 다음 소득이 시작되기 전의 공백입니다.

확정소득과 기대소득

받을 **권리**와 금액이 확인된 소득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상수입의 차이입니다.

퇴직급여의 역할

노후소득·부채·비상자금 등 목적을 나눠 관리하는 **기준**입니다.

판단 순서

- 1. 퇴직일과 확정소득의 시작일을 적는다
- 2. 공백기간의 필수**생활비**·보험·대출을 계산한다
- 3. 퇴직급여의 역할별 한도를 정한다
- 4. 재취업·창업은 기본·악화 시나리오로 계산한다
- 5. 소득이 기대보다 적을 때 중단·축소 **기준**을 정한다

문제가 생겼다면

- 추가 송금·서명·해지·앱 조작을 멈춥니다.
- 계약서·설명서·화면·대화·거래내역 등 원본 기록을 보존합니다.
- 1332 금융감독원 금융상담
-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
- 1577-1000 국민건강보험공단
- 132 대한법률구조공단

오늘의 한 행동

퇴직 뒤 3년간 확정소득과 기대소득을 구분해 적습니다.